

광주시 내년 예산 줄줄이 삭감

63억 깎여...市 사업추진 우려 속 예산확보 '비상'

광주시가 편성한 2011년도 본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의 공약사업인 '인권도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데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환경생태사업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되면서 광주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환경생태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일반적으로 전체예산 1638억9000만원 가운데 21억5500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심의회에서 광주세계도시 환경경로점 지원비 5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삭감돼 사업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일주도로 맨발 산책로 조성(1억4000만원) ▲무등산공원 체육시설 설치(3000만원) ▲광주공원 내 산책로 주변 야생화 식재(8000만원)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간 보완 식

재(3000만원) 예산은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이밖에 ▲너릿재 명품 숲길 조성사업(4억원) ▲무등산 동적골 생태체험 소공원 조성(1억5000만원) ▲녹색도시형 공원 등 설치(3억1530만원) 등은 사업성과 분석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광주자연생태탐방 현장조사 및 안내지도 제작사업(1000만원)도 사업보완 후 추경에 편성토록 조치됐다.

또한, 환경복지위는 이날 산수도시사업부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 수돗물·수질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을 삭감했다. 수돗물 개선에 힘쓰지 않고 수질 확보부터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분석 후 추경에 반영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도 도시디자인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를 갖고 ▲사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억원 ▲통합지주사업 1억원 ▲미분양택트 헬스 설치비 3천만원 등 2억3000만원을 삭감했다. 모두 사업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인권도시' 관련 예산 25억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경제정책 관련 예산 3억9400만원까지 합치면 이날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만 총 62억79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규모가 큰 종합건설본부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등 일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가 1일까지 이어지기에 예산 삭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거나 본회의에서 부활하는 등

'덜죽날죽' 했던 점을 미뤄볼 때 이번 본 예산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얼마나 부활할지 관심이 있다.

이처럼 광주시의회의 상임위의 예산 삭감 폭이 예전과 달리 커지자 광주시 간부들과 직원들은 "그동안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서 당황이 된다"며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심의과정이 합리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간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사실상 합리적인 삭감 판단 기준이 없다"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형성됐거나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삭감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복속 소속인 김보현 시의원은 "그동안 시의회가 실질적인 예산심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부도 그 관행에 젖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한 준비 및 사업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그만큼 사업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의 평화적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북, 작년 가을부터 정상회담 비밀접촉”

외교부, 美 정부 외교 전문 공개 파문에 당혹

외교통상부는 최근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제적인 파문이 일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외교문서에서 정확히 무슨 내용이 유출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미국 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언급을 삼가고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도널드 럼즈펠드 국무부 전문에 대해서는 코멘트도 확인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에는 한반도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의 내용이 유출됐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문서이고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비공개 대화내용이 거론되고 있는 점은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위키리크스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을 통해 발표한 외교 전문에는 김

정환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지난 2월3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당시 김 장관의 발언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중국을 방문하는데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에서 폭탄을 찾아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 등 기밀사항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관을 이 제3국이나 북한에 대해 얘기한 것이 여과없이 공개된다면 거북스런 일”이라며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 통과

10일 정례회 본회의 상정

광주지역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광주시 학

교급식비지원 조례' 명칭을 '광주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바꾸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食) 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지

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기 의원(민중·북구 1)은 “무상급식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절기 취약계층 2만가구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과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2만가구를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 효과가 큰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새로운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보다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 주택, 난방, 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통상 3월부터 시작하는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용예산을 활용, 독거노인 2000가구에 대해 화재·가스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추가 설치하고 8000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긴급 연료지원을 작년 4400가구에서 1만 2000가구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故 서정우 하사 부모 姜시장 만나 “감사”

“고(故) 서정우 하사는 훌륭한 군인정신을 지닌 우리들의 영웅이고 자랑스런 광주의 아들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아버지 서래일 씨(51)와 어머니 김오복씨(50)가 지난달 30일 광주시를 방문했다. 경기도 성남국군병원에 차려진 빈 소와 영결식장을 두번씩이나 찾아준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강 시장은 서 하사의 학창시절 손수 자필메모를 건넨

인연을 되새기며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광주대성여고 교사인 김씨는 “꽃다운 나이에 꽃봉우리를 피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연평도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안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강 시장께서 빈소와 영

결식장을 모두 찾아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인터넷에 감사 내용을 띄우려다 직접 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우가 지난 2004년 충선 당시 광주 남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강 시장으로부터 ‘정우 학생,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메모를 받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울먹였다.

강 시장은 “서 하사는 역사적으로 영웅이 됐다”며 “어머니가 학생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안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여성재단’ 내년 2월 설립

市 100억 출연...민간모금으로 재원 확충

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광주여성재단이 내년 2월 설립된다. 광주여성재단은 여성정책연구와 교류협력, 성 평등교육, 경영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15~27명이 근무하게 된다. 광주시는 100억원을 출연해 여성

재단을 출범시킨 뒤 민간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준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단 정관 및 규정을 제정하고 발기인 총회와 설립등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를 마련해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광주여성재단의 목표와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 근거, 재단의 사업계획,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여건 등의 변화로 전문적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할 기관이 필요해 여성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가 되며 얼굴이 몸매가 모델 행차에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밀렁거리는 피부 깎박 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색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돼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발도 드립니다.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역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은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